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식별과 기업규모별 고용현황

김정우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팀장(kjw@kli.re.kr)



- 20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기존의 종사자 수 혹은 자본금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됨.
 - 사업체패널조사는 바뀐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하고 있음.
- 기존 식별 기준인 300인 미만 고용규모와 새로운 식별 기준과의 차이는 작지 않음.
 - 새로운 식별 기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고용규모인 사업체 중 적게는 38.0%, 많게는 52.5%가량의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고용규모 기준과는 큰 차이를 보임.
- 사업체패널조사로 식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체는 고용특성에 있어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임.
 -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의 제조업 비중은 35.4%로 대기업(16.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유노조 사업체의 비율은 12.9%로 대기업(33.7%)에 비해 크게 낮음.
 - 평균 고용규모는 대기업 제조업 사업체가 226.1명이고, 중소기업 제조업 사업체가 63.5명임.
 - 중소기업 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대기업보다 낮고 과장급 이상 근로자 중 여성 비중도 대기업보다 낮음.
 - 직종별 분포를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는 대기업 사업체에 비해 생산·단순직의 비중이 두 배가량 높고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은 절반가량 낮으며 전문·사무직 비중은 작게는 4.4%p(2021년), 크게는 9.0%p(2015년) 작음.
 -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는 양 부문에서 모두 발견되나 중소기업에서 더 빠른 고령화가 관찰됨.
 - 중소기업 사업체의 이직률이 대기업 사업체보다 다소 높은데 비자발적 이직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자발적 이직에서 차이를 보임.

1. 배경 및 목적

- 20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됨.
 - 2015년의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기준이 기존의 종사자 수 혹은 자본금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됨.
- 중소기업은 여러 지원정책¹⁾의 수혜집단이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여부는 경영활동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배경요인임.

1) 우리나라는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박양신 외(2016)에 의하면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정책이란 시장실패 보완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외형적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나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의미함.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비롯한 자금지원 혹은 연구개발 지원 등이 행해지고 있음.²⁾
- 새로운 중소기업 기준에 입각한 대·중소기업 구분 및 분석이 요구됨.
 - 이렇듯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식별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는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므로, 개별 연구자가 이를 식별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종전과 같이 기업규모 300인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왔음.
 - 본고는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은 기존의 고용규모로 판단한 경우와는 얼마나 다르며, 대·중소기업 간 고용현황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함.

2. 활용 자료

-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대·중소기업별 고용현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를 활용함.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는 2005년부터 격년 주기로 사업체의 고용, 인사관리, 노사관계, 기업복지, 산업재해 등의 문제를 추적 조사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임.
- 중소기업 기준이 업종별 매출액 수준으로 단일화된 2015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1년 학술대회 자료까지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음.
 - 개별 사업체의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기업의 업종과 매출액을 확인하여 식별하였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대기업이라 규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은 분석대상에 제외하였음.
 - 모든 분석 결과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한 값임.

3.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특성과 300인 기준과의 차이

- 중소기업법에 의해 규정된 중소기업과 고용규모 300인 기준의 차이는 적지 않음(표 1 참조).
 - 사업체패널조사 민간부문 표본의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중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게는 38.0%에서 많게는 52.5%에 달하고 300인 미만 사업체 중 대기업에 포함된 경우도 최소 27.0%에서 최대 32.4%를 차지함.
 - 이는 단순히 고용규모 300인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식별할 경우 적지 않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 ※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 단위로 조사되므로 해당 사업체가 대규모 기업에 속한 사업체인 경우 해당 사업체의 규모가 작더라도 대기업 소속일 수 있음.

2) 김민호·박우람(2022)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정부 중앙부처는 323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약 30조 원, 지자체는 1,384개 사업에 약 3.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표 1〉 연도별 대·중소기업 구분과 300인 규모 구분과의 차이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N		N	%	N	%
2015	대기업	17,730		1,676	(62.0)	16,054	(27.0)
	중소기업	44,357		1,028	(38.0)	43,328	(73.0)
	전체	62,086		2,704	(100.0)	59,382	(100.0)
2017	대기업	18,569		1,799	(66.5)	16,770	(28.2)
	중소기업	43,667		1,206	(44.6)	42,461	(71.5)
	전체	62,236		3,005	(111.1)	59,231	(99.7)
2019	대기업	19,465		1,790	(66.2)	17,675	(29.8)
	중소기업	45,770		1,319	(48.8)	44,452	(74.9)
	전체	65,235		3,109	(115.0)	62,126	(104.6)
2021	대기업	21,208		1,961	(72.5)	19,248	(32.4)
	중소기업	46,574		1,419	(52.5)	45,155	(76.0)
	전체	67,782		3,380	(125.0)	64,402	(108.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각 연도.

〈표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체 특성(2021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N	%	N	%	N	%
	전 체	67,782	(100.0)	21,208	(100.0)	46,574	(100.0)
규모	30~99인	52,744	(77.8)	14,367	(67.7)	38,378	(82.4)
	100~299인	11,658	(17.2)	4,881	(23.0)	6,777	(14.6)
	300~499인	1,778	(2.6)	864	(4.1)	914	(2.0)
	500인 이상	1,602	(2.4)	1,097	(5.2)	505	(1.1)
산업	제조업	19,961	(29.4)	3,472	(16.4)	16,489	(35.4)
	경공업	4,303	(6.3)	933	(4.4)	3,370	(7.2)
	화학공업	3,842	(5.7)	784	(3.7)	3,058	(6.6)
	금속·자동차·운송	8,319	(12.3)	1,199	(5.7)	7,120	(15.3)
	전기·전자·정밀	3,497	(5.2)	555	(2.6)	2,942	(6.3)
	비제조업	47,821	(70.6)	17,736	(83.6)	30,085	(64.6)
	전기·가스·수도업	94	(0.1)	71	(0.3)	23	(0.0)
	건설업	7,330	(10.8)	709	(3.3)	6,621	(14.2)
	개인서비스업	11,204	(16.5)	5,244	(24.7)	5,960	(12.8)
	유통서비스업	4,486	(6.6)	517	(2.4)	3,969	(8.5)
	사업서비스업	16,275	(24.0)	5,703	(26.9)	10,572	(22.7)
사회서비스업	8,432	(12.4)	5,493	(25.9)	2,939	(6.3)	
노조	유노조	13,161	(19.4)	7,144	(33.7)	6,017	(12.9)
	무노조	54,621	(80.6)	14,065	(66.3)	40,556	(87.1)

주 : 산업 구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조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 중분류(2-digit)로 네 가지 업종으로 분류함. '경공업'은 10~18, 32, 33, '화학공업'은 19~23, '금속·자동차·운송'은 24, 25, 29~31, '전기·전자·정밀'은 26~28임. '개인서비스업'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도매 및 소매업(45~47), 숙박 및 음식점업(55, 5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 98)으로 구성됨. '유통서비스업'은 운수업(49~52), 통신업(61)으로 구성됨. '사업서비스업'은 출판업(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 및 임대업(68, 6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 75)으로 구성됨.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84), 교육서비스업(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6, 87), 국제 및 외국기관(99)으로 구성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1), 「사업체패널조사」.

- 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결과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의 규모와 산업 및 노조유무에 따른 분포 차이를 비교하면 <표 2>와 같음.
 - 사업체패널조사의 민간부문 표본 전체의 분포에 비해 중소기업 집단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다소 높지만, 전체 중소기업 표본 중 약 3.1% 정도는 고용규모가 300인을 넘어서고 있음.
 - 중소기업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중이 각각 35.4%, 64.6%인 반면, 대기업은 제조업이 16.4%, 비제조업이 83.6%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음.
 - 중소기업 중에는 사업서비스업(22.7%), 금속·자동차·운송장비제조업(15.3%)의 비중이 높았고 대기업 중에는 사업서비스업(26.9%), 사회서비스업(25.9%), 개인서비스업(24.7%) 등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비중이 더 높았음.
 - 노동조합 유무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유노조사업체 비중은 33.7%로 중소기업의 유노조사업체 비중인 12.9% 보다 훨씬 높아, 대기업에서 노조가 더 많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고용현황 비교

-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15~2021년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평균적인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음.
 - 2021년도 기준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평균적인 고용규모는 166.8명, 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평균적인 고용규모는 73.9명으로 대기업이 두 배 이상 많음.
 - 2015년에서 2021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평균 고용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평균 고용규모는 2015년에 149.7명에서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66.8명에 달함.

<표 3> 연도별 대·중소기업 특성별 평균 근로자 수

	2015			2017			2019			2021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95.7	149.7	74.1	100.8	161.1	75.1	99.6	159.1	74.3	103.0	166.8	73.9
제조업	89.4	210.1	62.6	89.8	211.2	63.5	89.8	225.8	62.6	91.8	226.1	63.5
경공업	69.8	125.1	56.1	66.4	105.1	54.8	71.5	121.4	57.9	72.3	131.7	55.8
화학공업	91.0	193.1	61.4	86.7	179.2	65.2	85.7	181.2	63.8	85.6	173.8	63.0
금속·자동차·운송	87.2	209.0	65.3	82.5	191.7	63.8	82.9	214.2	61.1	89.7	245.7	63.4
전기·전자·정밀	118.1	347.2	65.5	140.8	448.3	70.9	135.3	509.8	70.5	127.7	416.1	73.2
비제조업	99.0	132.8	81.6	106.4	148.4	82.8	104.3	144.5	81.6	107.6	155.2	79.6
전기·가스·수도업	123.3	151.8	48.7	125.6	154.6	48.7	125.4	142.1	50.4	109.3	129.4	46.9
건설업	74.8	190.3	63.6	80.7	211.2	64.3	76.4	235.2	60.4	75.3	241.1	57.5
개인서비스업	71.1	88.6	56.3	73.3	98.0	55.6	73.4	92.2	57.4	73.0	94.4	54.2
유통서비스업	100.0	107.9	99.1	95.1	111.5	93.6	99.9	153.8	94.2	95.1	151.9	87.7
사업서비스업	124.6	179.1	98.9	142.5	210.2	105.7	144.0	226.3	102.4	146.0	235.3	97.8
사회서비스업	119.3	135.4	92.4	118.4	129.9	94.3	106.6	113.6	94.8	114.5	119.5	105.1
유노조	165.6	217.1	110.3	166.0	212.1	107.0	164.4	215.7	107.1	169.0	224.0	103.7
무노조	79.7	115.4	68.9	85.0	131.6	70.7	84.3	130.3	69.5	87.1	137.7	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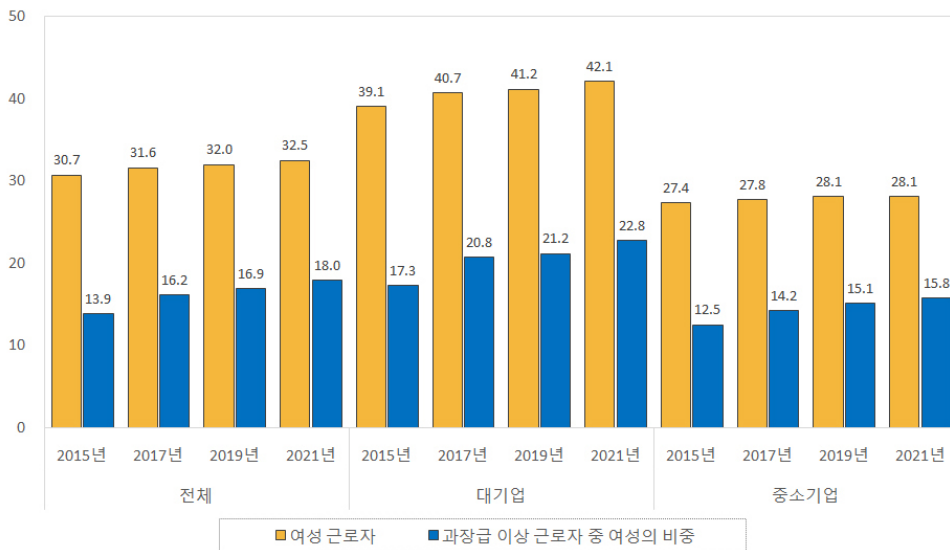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각 연도.

※ 사업체패널조사는 조사시점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를 조사하였고, 이때 ‘전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계약직 등)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등과 같이 사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함.

- 모든 연도에 걸쳐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고용규모가, 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비제조업의 고용규모가 더 컸음.
 -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은 제조업 중 특히 전기·전자·정밀공업과 금속·자동차·운송장비제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많았으며, 비제조업 중에는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용규모도 컸음.
 - 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은 비제조업 중에서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컸고 제조업의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음.
-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조유무별 평균 고용규모는 대기업 유노조사업체, 대기업 무노조사업체, 중소기업 유노조사업체, 중소기업 무노조사업체의 순으로 컸음.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조유무별 평균 고용규모는 일관되게 위와 같은 패턴을 보였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부문별 평균 고용규모는 대기업 유노조사업체(224.0명), 대기업 무노조사업체(137.7명), 중소기업 유노조사업체(103.7명), 중소기업 무노조사업체(69.5명)임.
-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여성 근로자 비율과 과장급 이상 직원 중 여성의 비중은 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에 비해 다소 높는데, 구체적 수치는 [그림 1]과 같음.
 -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비중은 2015년 39.1%에서 2021년 42.1%로 3.0%p 증가했고, 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비중은 27.4%(2015년)에서 28.1%(2021년)로 0.7%p 증가함.

[그림 1] 연도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성 근로자 및 과장급 이상 여성 비중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각 연도.

- 과장급 이상 중 여성 비중은 대기업 사업체의 경우 17.3%(2015년)에서 22.8%(2021년)로 5.5%p 증가했고, 중소기업 사업체도 같은 기간 동안 12.5%에서 15.8%로 3.3%p 증가함.

• 대·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직종 분포는 일부 직종에서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 <표 4>임.

- 관리직 근로자의 비중은 대기업 사업체의 경우 작게는 9.4%에서 많게는 10.0%의 비중을 보였고, 중소기업 사업체의 경우 10.7%에서 11.4% 사이로 나타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 대기업 사업체의 전문·사무직 근로자 비중은 37.8~40.6%로 나타나 중소기업 사업체에서의 비중 29.4~36.2%에 비해 다소 높았음.

<표 4> 연도별 대·중소기업 산업별 직종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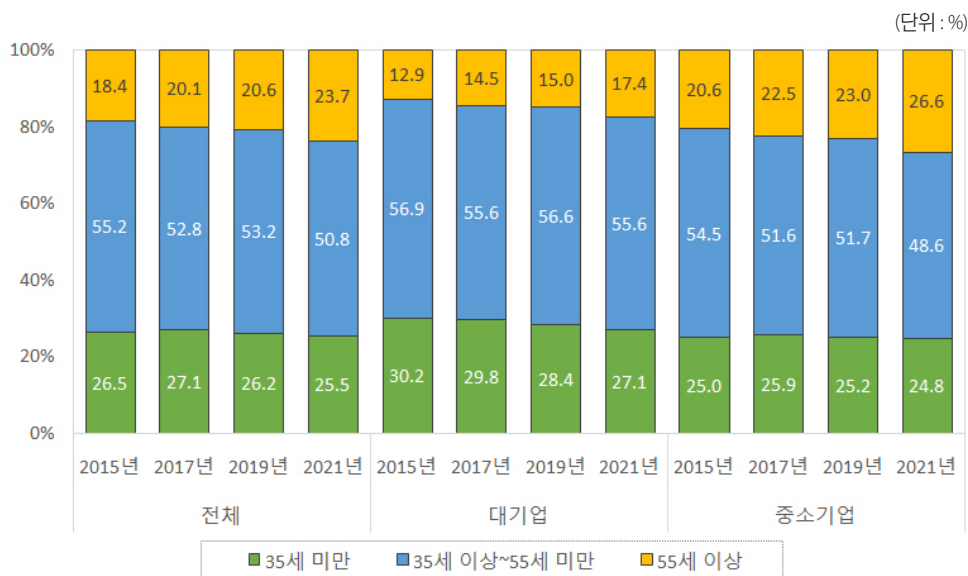
		관리직	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단순직	
2015	전 체	10.5	32.6	19.4	37.6	
	대기업	전체	9.9	39.0	28.6	22.5
		제조업	12.3	25.2	2.0	60.5
		비제조업	9.2	42.9	36.0	11.9
	중소기업	전체	10.7	30.0	15.7	43.6
		제조업	11.7	23.6	3.2	61.5
		비제조업	10.1	34.2	23.8	31.9
	2017	전 체	11.0	31.9	19.7	37.4
		대기업	전체	10.0	37.8	29.3
제조업			13.1	25.6	2.0	59.3
비제조업			9.2	40.9	36.2	13.7
중소기업		전체	11.4	29.4	15.6	43.6
		제조업	12.6	21.3	3.9	62.2
		비제조업	10.6	34.7	23.3	31.4
2019		전 체	10.6	34.6	17.8	36.9
		대기업	전체	9.4	39.5	29.3
	제조업		11.8	27.1	2.4	58.7
	비제조업		8.8	42.3	35.2	13.8
	중소기업	전체	11.2	32.5	13.0	43.3
		제조업	12.1	22.8	3.9	61.3
		비제조업	10.6	38.6	18.6	32.2
	2021	전 체	10.7	37.6	17.5	34.3
		대기업	전체	10.0	40.6	27.6
제조업			13.3	24.6	3.9	58.1
비제조업			9.4	43.8	32.3	14.6
중소기업		전체	11.0	36.2	12.9	39.9
		제조업	12.6	24.5	4.5	58.3
		비제조업	10.0	42.6	17.4	29.9

주: 「사업체패널조사」는 2015년은 제6차, 2017년부터는 제7차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총 7개 직종(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단순직)을 식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관리직, 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단순직의 4개 범주로 분류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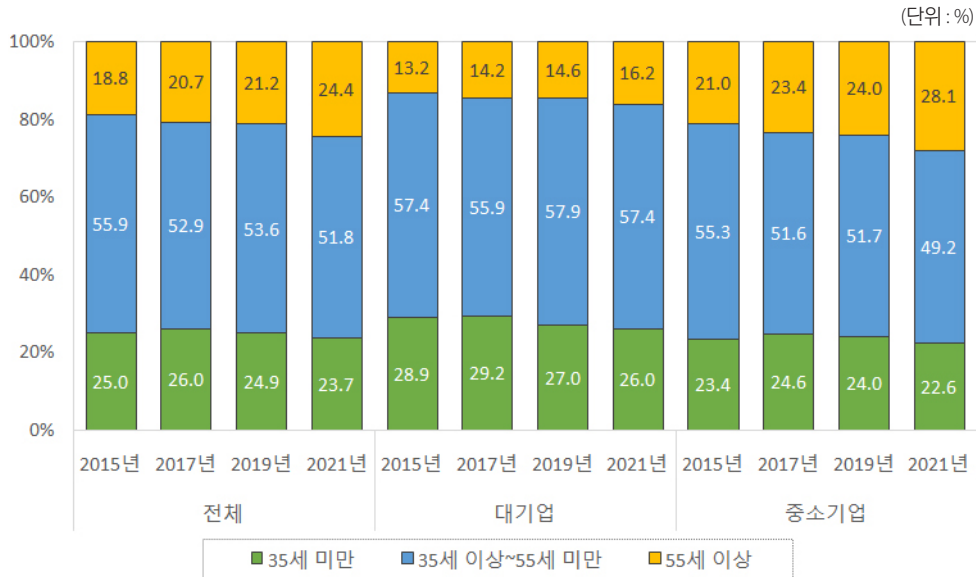
-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대기업 사업체에서의 비중(27.6~29.3%)이 중소기업 사업체에서의 비중(12.9~15.7%)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음.
 - 생산·단순직에서는 반대로 중소기업 사업체에서의 비중(39.9~43.6%)이 대기업 사업체에서의 비중(21.7~22.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음.
 - 이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보면, 제조업 사업체는 비제조업 사업체에 비해 전문·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작고 생산·단순직의 비중은 크게 나타나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에서 모두 발견됨.
-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노동력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음.
- 35세 미만 집단과 35세 이상부터 55세 미만 집단의 규모는 2015년에서 2021년 사이에 각각 26.5%에서 25.5% 및 55.2%에서 50.8%로 추세적으로 감소하나 55세 이상 집단의 규모는 같은 기간 18.4%에서 23.7%로 비교적 크게 증가함.
 - 같은 기간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의 55세 이상 상대적 고령인구 비중은 12.9%에서 17.4%로 4.5%p 증가했고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대적 고령인구 비중은 20.6%에서 26.6%로 6.0%p 증가해 양 부문 모두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같은 분포를 남성 근로자 및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그린 것이 각각 [그림 3]과 [그림 4]인데 남성의 경우 55세 이상 상대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5년 18.8%에서 2021년 24.4%로 5.6%p 증가했고, 여성은 12.9%(2015년)에서 17.1%(2021년)로 4.2%p 증가함.
 - 특히 중소기업 사업체에 고용된 남성 근로자 집단의 경우 55세 이상 상대적 고령 근로자 비중이 2015년 21.0%에서 2021년 28.1%로 7.1%p 증가해 다른 집단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그림 2] 연도별 대·중소기업별 전체 근로자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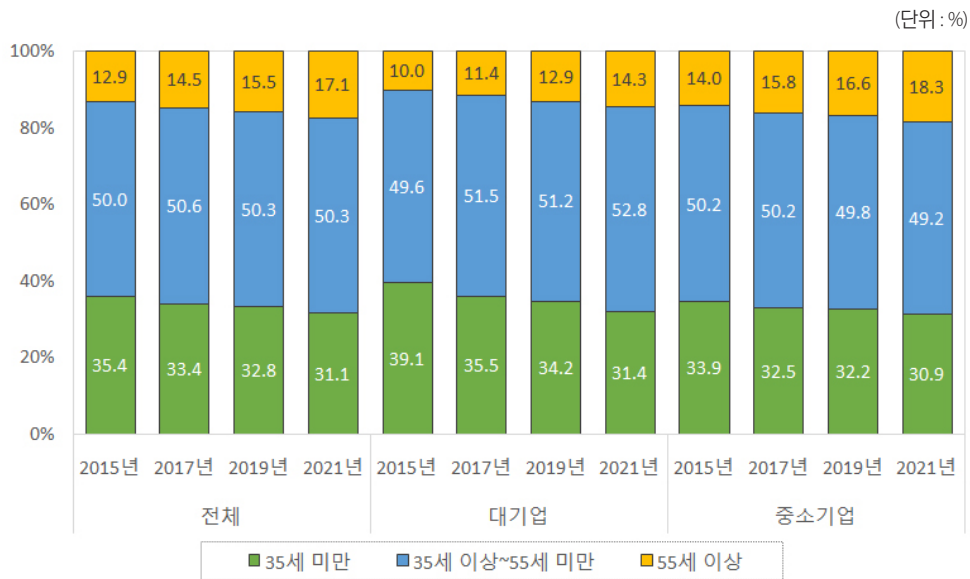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각 연도.

[그림 3] 연도별 대·중소기업별 남성 근로자 연령분포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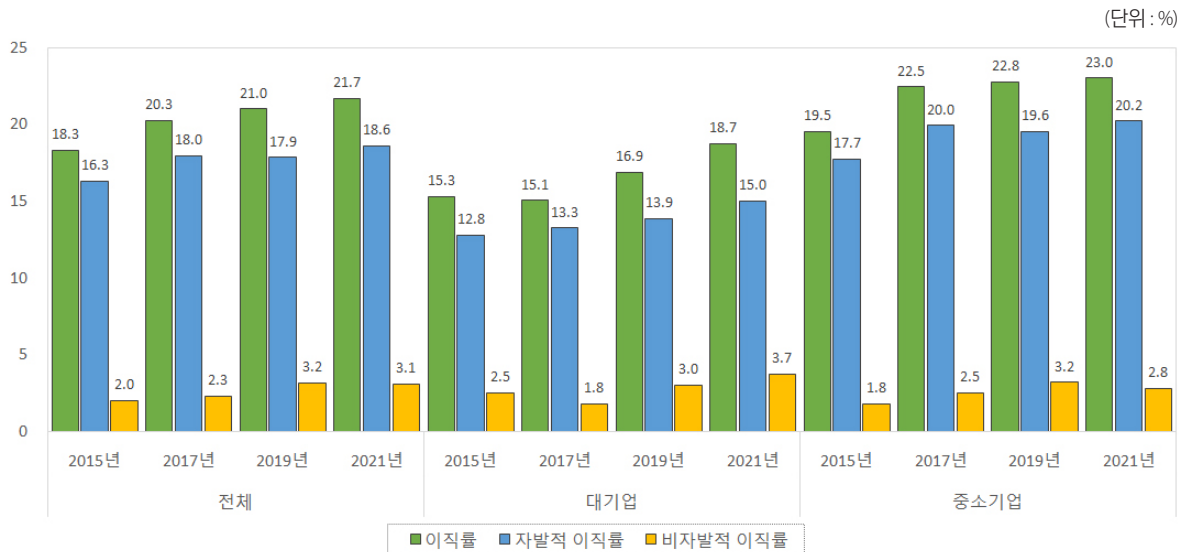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대·중소기업별 여성 근로자 연령분포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각 연도.

- 사업체의 근로환경 및 고용안정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이직률을 고려할 수 있는데, 대·중소기업 사업체들의 이직률을 자발적 이직률과 비자발적 이직률로 나눈 것이 [그림 5]임.
 - 전체 이직률은 2015년 18.3%에서 2021년 21.7%로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추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모두 발견됨.
 - 같은 기간 자발적 이직은 16.3%에서 18.6%로 2.3%p 증가했고, 비자발적 이직은 2.0%에서 3.1%로 1.1%p 증가해 자발적 이직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음.
 -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의 이직률(15.1~18.7%)에 비해 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의 이직률(19.5~23.0%)이 높으나 비자발적 이직으로 한정할 경우, 양 부문 간의 격차는 작고 연도별로 다름.

[그림 5] 연도별 대·중소기업별 이직률



주: 자발적 이직은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경우(전직), 창업, 학업, 육아, 심신장애 및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비자발적인 이직은 정년퇴직, 징계해고, 정리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명예퇴직, 권고사직, 분사나 외주하청 등의 이유로 해고, 분사, 계열사 등으로 이직, 계약해지(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주로 기간을 정해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됨)되는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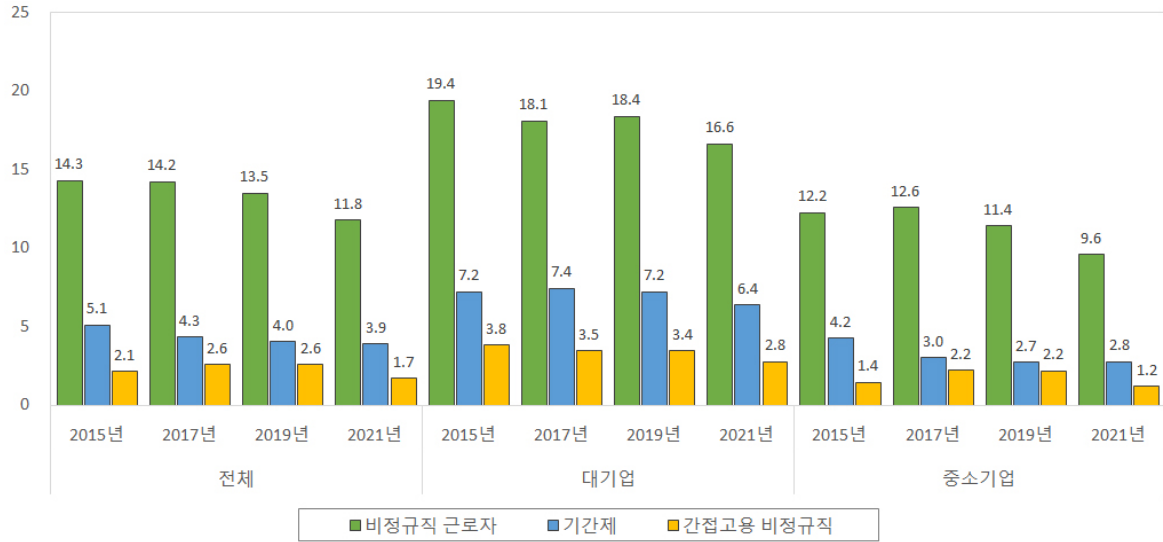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각 연도.

• 대·중소기업 사업체에서 고용형태별 노동력 구성을 나타낸 것이 [그림 6]임.

-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의 비정규직 활용비중은 2015년 19.4%에서 2021년 16.6%로 감소했고, 중소기업에 속한 사업체의 비정규직 활용비중은 12.2%(2015년)에서 9.6%(2021년)로 추세적으로 감소함.
-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의 기간제 근로자 활용비중은 6.4~7.2%로 나타나 중소기업 사업체의 비율인 2.7~4.2%에 비해 많았고, 간접고용 근로자(파견, 하청, 용역 등)의 활용비중도 대기업은 2.8~3.8%인 반면, 중소기업은 1.2~2.2%로 나타나 대기업이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및 간접고용 근로자의 활용비중이 대기업 소속 사업체와 중소기업 소속 사업체 모두에서 다소나마 감소함.

[그림 6] 연도별 대·중소기업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주: 비정규직근로자는 사업체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기간제(계약직 등),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와 더불어 사업체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별도의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 하청·용역), 근로자와 경계가 모호한 특수형태(독립도급), 일용근로자를 모두 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각 연도.

참고문헌

- 김민호·박우람(2022),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박양신 외(2016), 『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산업연구원.